

라틴아메리카 속의 한국 · 한국인

■ 아르헨티나의 언론인, 김영길

몇해전부터 인터넷에서 라틴아메리카 관련 뉴스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생생한 육성이 담긴 그 뉴스는 방대한 남미 대륙에 변변한 특파원 하나 파견하는 일 없이 그저 서방언론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메이저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성이 있었다. 블로거들은 그 뉴스를 읽고 또 여기저기 소개하기 시작했고, 이제 라틴아메리카 뉴스하면 ‘남미 리포트’를 떠올릴 정도로 유명해졌다. 정론 앞에 사론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었다. 물론 모든 뉴스는 관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얼마간은 편향적이다. 그러나 팩트를 감추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뉴스라면 팩트와 관계된 맥락까지 밝혀야 하는 게 원칙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영길 기자의 ‘남미 리포트’는 우리나라 독자에게 라틴아메리카 뉴스의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판단하여 《트랜스라틴》은 서면 인터뷰를 시도했다. [서라연]

서라연: 먼저, 아르헨티나 외신기자협회 회장으로 피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협회의 성격은 무엇이고 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김영길 기자

김영길: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외신기자협회는 세계 각국 150여 개 언론사 155명의 특파원들로 구성된 공인언론단체입니다. 그런데 회원 70%정도가 구미각국의 언론사 특파원들이어서 지금까지는 이른바 메이저언론사 기자들이 집행부를 장악, 남미나 아시아권 기자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권 그것도 한국출신인 제가 회장으로 피선된 것은 현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저는 2년의 임기 동안 회원들간의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메이저 언론사들의 현지 실상 왜곡을 최대한 바로 잡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애깁니다.

서라연: 최근 남미국가연합(UNASUR)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남미가 유럽연합 수준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통합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EU 수준의 통합체로 가기 위해선 글 쓰신 것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미 통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영길: 대승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남미통합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ALBA국가들인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의 국가들은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가시적인 통합을 이룬 수준이며,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경제, 문화, 금융 등의 분야에서 통합수준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중남미 국가전체가 통합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력과 경제규모 등 나라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중남미는 유럽에 비해 거의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역사와 문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 그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서라연: 아르헨티나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농업 파업 사태로 다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을 간략하게 분석해 주시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르헨티나 거시경제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김영길: 이번 아르헨티나 농민사태는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대기업형 농부들이 각종 농산물에 부과되는 정부의 수출세율이 너무 과중하다는 불만이 표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두생산 기준 1,000톤 미만의 소규모 영세 농민들이 수출세 환급규모를 더 늘리라고 가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영세농민 한도를 750톤 생산 미만으로 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정부나 농민들이 아닌 서민들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정부는 절대다수(전체 농민의 90%수준)인 소규모 농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줌으로써 사태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현재 농민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 이지만 농민파업이 수그러들고 정치가 안정된다면 예전처럼 연7~8% 수준의 성장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국제시장에서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석유가와 곡물가의 상승세 덕분이겠지요.

서라연: 최근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과 함께 우리 정부도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이미 이른 시기에 남미의 지하자원과 곡물에 대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현지에 체류 중인 남미 전문가로서 현지점에서 우리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김영길: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남미자원협력센터라는 기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자원 확보 차원에서 실익을 거두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당국이나 기업인들은 한국정부 관계자들이나 기업들이 현지에 자원개발이나 직접투자분야에 소극적이라는 인

식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아르헨티나 방문 시 대규모 자원 개발과 현지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다음해 외환부족과 IMF사태로 인해 전면 백지화된 과거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아르헨티나 방문 때에도 현지 투자와 협력관계가 주 의제였지만 실현된 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르헨티나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정부나 기업인들의 개발 의지나 투자 약속을 불신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이나 일본관료들과 기업인들은 지하자원 개발과 곡물확보 등에 오랜 기간 동안 적극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상황이 급변하거나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자원개발프로젝트만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인들이 남미 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다면 단발성 이벤트나 접근방식이 아닌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미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한 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애깁니다.

서라연: 《프레시안》에 게재 중인 ‘남미 리포트’는 남미 현장의 소식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국내 언론과 차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소개되어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국내 라틴아메리카 관련 보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헨티나에는 150여 개 이상

의 세계 각국 언론사 특파원들이 주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도행태를 살펴보면 같은 사안이라도 논조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국의 관심사항과 국익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지요.

한국 언론이 즐겨 인용 보도하는 서방언론, 특히 영국과 미국 언론들은 남미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미 자원을 착취해 부를 축적했던 스페인제국이 와해된 후 미국과 영국은 금융권 장악과 경제착취를 통해 자국의 경제위기를 해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70년대 중남미를 휩쓴 군사정권과 이들 군인들이 밀어붙였던 자유주의 정책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1990년대 초 멕시코의 ‘데킬라 파동’, 아르헨티나의 ‘탱고파동’, 1990년대 말의 브라질의 ‘삼바파동’ 등의 예에서 보듯이 남미의 금융파동 뒤에는 영·미의 자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남미 금융파동을 이용해 자국의 경제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남미를 휩쓴 좌파바람으로 인해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언론들은 어떻게 하든지 좌파정권을 몰아내고 친미파정권이나 보수우익 정권이 들어서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들 언론들은 친미파 교수들이나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크게 부각시키고 절대다수인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이들은 은연중에 남미가 항상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도 아주 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사들이 이들 영·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현지실정의 또 다른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라연: 국내 언론을 위해 글을 보내시는 것 외에 현지 언론에도 글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김영길: 현재는 협회회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 정부는 언론들, 특히 외신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해 이런 문제 해결과 서방언론사 특파원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과 진실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지 언론 글쓰기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라연: 1986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의 동기, 그리고 기자로 활동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김영길: 제가 이민을 결정하게 된 시기는 5공 말기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한마디로 숨막히는 곳이었지요.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 싶은 시절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당시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가 나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돌파구가 아르헨티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온 후 현지 언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소수민족이라는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소수민족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아르헨티나 현지 사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인 이민자들은 현지 언론의 집중타를 맞았습니다. ‘한인들은 불결하다. 탈세의 주범이다. 불법고용의 대명사다. 노예노동과 착취를 일삼는다’ 등이었지요. 물론 일정 부분 한인이민자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대부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인 이

민자들은 그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는 물론 변명을 할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지 언론인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현지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라연: 한국 교민사회가 한국-아르헨티나 교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국-아르헨티나 관계가 발전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김영길: 한인들의 아르헨티나 이민 역사는 어언 50여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2-3세 전문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그 거리만큼이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각하는 관점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지실정에 어두운 직업외교관들의 보고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현지감각을 실질적으로 익힌 이들 전문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아 관계는 지구반대편이라는 거리와 문화적인 차이 등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하는 외교채널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라연: 국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연구동향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국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자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한국 학계의 남미에 대한 연구동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현지 관점에서 볼 때에도 놀라울 만큼 앞서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연구과제와 인물을 선택할 때 상대의 국적과 어떤 성향의 인사인가 하는 점 등과 현지 언론보도를 참조할 때는 그 언론사의 성향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미 지역에 대한 실상은 국가와 인물, 언론들에 따라 그 판단과 진단결과가 극에서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주장과 이론들을 폭넓게 소화해야 한다는 애깁니다.

서라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